유교와 미래사회
- 한국을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 -

최 근 덕*

I. 머 리 말

儒敎 哲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우주의 萬象과 인간의 일 어느 것이나 變易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잠시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理法은 가장 오래된 경전인 『易經』에 아주 曲盡하게 되풀이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古代人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線上에 있는 '미래'에 대해 일종의 호기심과 함께 의구심 내지 경외감을 품고 있었으며, 그 결과 卜筮를 생각해 냈다. 占을 친다는 것은 닥쳐 올 앞날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야릇한 호기심마저 곁들이는 것이다. 『역경』의 출현은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 또는 의구심을 충족시키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문명이 열리면서 『역경』은 심오하고도 품격을 갖춘 형이상학적 사색으로 전개되어 갔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법을 전제로 성행하게 된 복서에 이미 그러한 조짐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조짐의 내용은 이러하다. 첫째,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둘째, 변화에 순응한다는 것은 자연을 따르는 것이다. 셋째, 자연을 따르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다. 넷째, 도덕적인 것은 바로 吉이다. 이로 미뤄 보면 『역경』의 복서는 도덕적인 것은 吉이고 비도덕적인 것은 凶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결과는 점을 치기 전에 이미 결판이 나 있는 것이다. 『역경』 繫辭傳(上傳 第五章)에서 이미 이를 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라고 했는데, 풀이하자면 "한 陰과 한 陽을 도라고 이르는데 거기에서 계승되는 것은 善이고 그것을 이룩하는 것은 性"이라는 것이다.

---

* 성균관장

易 思想이 고도의 철학적 전개를 이룩하자 豫見(卜筮)도 品位를 지니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유학자의 한 분인 栗谷 李珥(1563~1584)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夫所謂時宜者 隨時變通設法救民之謂也. 程子論易曰, 知時識勢 學易之大方也. 又曰 隨時變易 乃常道也. 蓋法因時制 時變則法不同"(「萬言封事」, 『栗谷全書』 卷五). "夫所謂時宜者"라, 대저 우리가 말하는 시의(時宜)라는 것, 그때그때 마땅한 것, 때에 따라 마땅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隨時變通," 즉 때에 따라서 변통하고, "設法救民," 또 그 변통에 따라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백성을 구제하는, 그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정자가 일찍이 역을 논하기를 "知時識勢 學易之大方也"라, 때를 알고 형세를 아는 것이 역을 배우는 큰 방책이라고 했고, 또한 "隨時變易 乃常道也"라, 때에 따라서 변역하는 것이 상도라고도 했으니, "法因時制"라, 법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제정되어야 되고, "時變則法不同"이라, 시대가 변하면 법은 같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조선조 오백년 동안 이게 전혀 무시되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豫見이란 다름이 아니다. 時宜, 즉 그 시대에 가장 適宜하게 變通하라는 전제를 두고서 "知時識勢," 곧 時勢를 잘 파악해, "隨時變易," 곧 때에 알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문명사회에서의 卜筮이다.

'내일의 유교'를 논하는 자리에서 굳이 易을 들춰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이러한 철학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유교는 지난날 時宜도 知時識勢도 隨時變易도 하지 못했다. 膠柱鼓瑟로 인습을 고집하기만 했다. 그 결과 亡國恨도 머금게 되고 구시대의 유물로 밀려나야 했다. 이제 뼈저리게 그 愚를 반성해 보는 것이다. 둘째는, 이미 때가 늦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내일을 논하는 자리니까 혹시라도 오늘 이 비방(易)을 되살려 내일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 기대를 걸어 보기 위해서이다.

II. 韓國儒敎의 어제와 오늘

來日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어쩔 수 없이 어제와 오늘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이란 어제와 오늘이 있어서 비로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교의 내일을 논하자면 어차피 하나의 典型은 있어야 할 것이다. 방편상 한국 유교를 전형으로 삼아 그 어제와 오늘을 알아 보고 그를 미뤄 내일을 추측해 보

기로 하겠다.

한국 유교의 어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영광과 得意로 점철되어 있다. 유교가 어느 때 수용되었는지 그 기록은 자세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1,600년 전(고구려 소수림왕 2년, A.D. 372년)에 太學(국립대학)을 세워 자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실적이 있고 이보다 앞서는 扃堂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중등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한 기록도 보인다. 주로 고대 한국의 북방사회에서 유교는 두드러진 역할을 했는데, 이는 지역적으로 중국과 접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교는 곧 남방사회에서도 교육을 담당하기 시작하며, 따라서 인재 양성, 관리 등용을 관장하게 되고 드디어는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받들어지기에 이른다.

한편, 불교가 수용되어 찬란한 개화를 시작하자 유교는 종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란 내세관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종교적 역할을 뜻한다. 이후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로 내려오면서 불교는 주로 종교적 영역을 담당했고 인간의 기본 윤리나 일상의 도덕, 나아가서 국가의 통치철학은 유교가 전적으로 맡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崇儒抑佛策을 정책의 기조로 삼은 조선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太祖 李成桂를 도와 易姓革命을 수행한 일단의 고려조 文臣 그룹은 고려 일대를 통해 불교가 어떠한 폐해를 끼쳤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국가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한 불교의 공을 모르는 바 아니었겠지만 국가 쇠퇴기에 노정된 말기적 증상은 뜻 있는 이의 우려를 넘어설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문신 그룹이 불교 배척의 선두에 섰는데, 이들은 이미 수용하기 시작한 정주학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조는 國初에 정립한 숭유억불책에 의해 유교를 國是로 해서 '나라 다지기' '나라 만들기'를 수행해 갔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儒敎立國의 열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영역은 의연히 불교가 차지하고 있었다. 왕실과 이른바 양반계급, 그리고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상하가 마찬가지였다. 이를 外儒內釋이라 하는데, 조선조를 유교국이라 하는 것은 외견상의 일컬음이고 실은 儒佛이 공존했으며 道敎도 정신생활에 상당히 깊이 침투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여튼 유교는 국교의 지위를 누리면서 사상계 전반을 지배했으며 新儒學이라 일컫는 程朱學이 주류를 이루었다. 초기에는 至治主義를 표방해 義理學, 道學이라 일컬었고, 이어 性理學이 학술계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중기에 와서는 禮學이 흥성하고 實學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실학은 유교의 官學化, 경색화에 대한 반성으로 대두되어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파국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파국은 서구문명을 재빨리 수용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되었다. 사실은 일본제국의 국권 침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서구문명에 의해 열린 신세계의 새로운 기운에 익숙하지 못한 탓이었고, 이것은 전적으로 유교에 책임이 있었다. 유교는 통치철학으로서의 기득권에 집착한 나머지 異敎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官學으로서의 권위에 사로잡힌 나머지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려는 아량이 없었다.

西學이라 부른 서구의 종교, 학술이 과학문명을 동반해서 홍수처럼 밀려들어 올 때 유교에서는 衛正斥邪(이 때의 正은 유교를 보위하고 邪인 이단을 배척한다는 뜻)의 논리를 내세워 응전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위정척사란 멀리 孔孟 이래 창도되어 온 것으로서 새로운 이론의 무장이 없었던 것이다. 위정척사론자와는 다른 입장에 선 혁신론자, 개화주의자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수구세력이 지키는 고집의 벽은 깨뜨리지 못했다.

그러나 왕조가 폐막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유교의 종교성이 여지없이 발휘되었다. 국가, 민족에 대한 의리정신이 폭발되어 혹은 자결로 정기를 빛내고 혹은 붓을 던지고는 칼을 짚고 일어서서 의병이 되어 항전을 했다. 망국의 문턱에서 순국한 유림의 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일제시대의 유교는 대체로 세 가지 길을 택했던 것 같다. 첫째의 선택은 왜적에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하는 것으로, 이에 속하는 유림은 항거 끝에 순사하거나 살아남은 자는 중국 등지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두 번째의 선택은 교육구국을 표방하는 일이었다. 인재를 양성해 二世 三世의 손으로 나라를 되찾게 하자는 것으로, 이에 속하는 儒者는 국내에 머물러 전통을 고수하면서 묵묵히 다음 세대 교육에 전심했다. 이들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일제의 사찰과 간섭이었다. 세 번째는 일제에 협력하는 것이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자들은 皇道儒學 등 이른바 어용 이론의 날조에 앞장을 섰다.

광복을 맞이했을 때 유교는 한동안 재건과 중흥의 꿈에 부풀었다. 처음 일년 여 동안은 조금은 희망이 있는 듯도 했다. 일제가 물러난 공백을 정치, 문화, 사상에 걸쳐 전통적인 옛 것이 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시일이 갈수록 이러한 생각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다. 어디에도 동양정신은 없었다. 서양만이 갈채를 받고 힘을 나타내고 있었다. 유교가 끼어들 여지가 있을 리 없었다. 유교는 부지런히 재건을 시도하다가 자체 내의 열기에 들떠서 고질이 발작되었고 걷잡을 수 없는 분규에 휩싸이고 말

았다. 유교는 知時識勢도 하지 못했고 따라서 時宜도 잡지 못했으며 隨時變易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후 유교는 자기 나름의 몸부림은 있었다손 치더라도 성과를 찾아내기는 어렵다.

그러면 오늘 현재 한국 유교의 현황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우선 표면적 상황부터 알아보겠다. 첫째, 성균관은 건재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두 기능 가운데 교육의 기능은 광복 후 설립한 성균관대학교가 계승하고 있다. 재단은 분리가 되어 딴 살림으로 나갔지만 유교를 건학리념으로 하고 있고 유학대학, 유학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설립된 太學의 학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제사의 기능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文廟인 大成殿에 孔夫子를 비롯한 선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어 춘추로 釋奠이 올려지고 매월 삭망에 분향을 한다. 孔夫子를 主享으로 해서 顔子, 曾子, 子思, 孟子와 宋朝 六賢(周敦頤, 程顥, 程頤, 邵雍, 張載, 朱熹), 朝鮮 十八賢(薛聰, 崔致遠, 安裕, 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彦迪, 李滉, 金麟厚, 李珥, 成渾, 金長生, 趙憲, 金集, 宋時烈, 宋浚吉, 朴世采)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건물도 大成殿을 비롯해서 옛 유생들의 강의실인 明倫堂, 기숙사인 東西齋, 도서관인 尊經閣, 그리고 六一閣, 享官廳, 書吏廳, 正錄廳, 守僕廳, 祭器庫, 東西廡 등 대부분의 옛 전각들이 보존되어 있고 6.25 동란 때 소실되었던 丕闡堂도 복원되었다. 현재의 성균관은 조선 태조 8년(1398)에 설치되었으며, 고려의 성균관은 개성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현재 성균관에는 관장, 부관장이 있으며 유교문화연구위원회, 전례위원회, 교화위원회, 유교사상연구원이 있고 司儀, 典學, 典儀 등이 있다. 儒敎新報를 격주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기타 출판물도 발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국에 233處의 향교가 보존되어 있다. 향교는 왕조시대 중등교육기관으로 국립이었으며 그 고을의 수령이 장을 맡아 지휘 감독했다. 지금은 典校가 책임자이고 掌議 등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성균관의 절제를 받고 있다.

또한 전국에 백여 處의 서원이 산재해 있다. 서원은 조선시대에 특출한 儒賢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제사를 받드는 동시에 교육의 기능도 수행했다. 서원은 향교와 궤를 같이 하며 봉안되어 있는 儒賢의 후손과 그 지방의 유림들이 함께 운영 관리하고 있다.

현재 유림의 조직으로는 儒道會가 결성되어 있다. 전국 말단 행정구역 단위로

지부가 결성되어 있고 9개 道와 특별시, 직할시에 본부가 있으며 중앙에 총본부가 있다. 산하에 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 유교학생회 등이 있다.

유교는 이처럼 유구한 전통과 고도로 정제된 사상, 그리고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가졌으면서도 좀체로 생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일찍이 유교의 현대화 4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는 유교의 종교화이고, 둘째는 유교의 孔孟化며, 셋째는 유교의 한국화이고, 넷째는 유교의 대중화이다. 이 현대화 4대 원칙을 제시할 당시에 지금 여기 금장태 교수께서 많이 교시를 해 주었다. 아마 그때가 한 10년 전으로, 1985년이나 86년도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III. 내일, 그리고 유교

1) 내일에의 기대

내일의 인류 역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미래학에 문외한인 본인으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어제의 연장이 오늘이고 오늘을 바탕으로 해서 내일이 열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을 거울 삼아 내일을 비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늘을 우리는 산업사회라 일컬으면서 기계문명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 지난날의 생활방식, 생활도구는 시간을 다투며 낡아가고 그에 따라 의식구조도 가치관도 급속도로 변화를 거듭한다. 전통의 단절이나 인간성의 소외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의 이러한 상황이 내일에 가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정착이 될 것인지, 대략은 짐작이 가지 않는 바가 아니다. 기계문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추측만은 허락이 되기 때문이다.

소박하게 말한다면 인간은 역사 이래 그저 '잘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화니 문명이니 하는 것도 잘 살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고 사상이니 주의니 하는 것도 잘 살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기계문명의 발달이 잘 살기 위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편안한 생활방식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과학은 가위 무소불능이다. 일부의 미래학자들이 이러한 과학문명에 힘 입어 인류의 밝은 미래를 점치고 있는 반면에 일단의 미래학자들은 비관론을 편다. 특히 핵물리학의 발달이나 유전공학이 가는 길에 대해 극도의 긴장감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관한 한, 유교는 대단히 낙관적 기대를 걸고 있다. 한민족은 오랜

유교적 습속에 젖어 생활규범이나 윤리감각은 바로 유교 그것이며 종교적 신념도 유교의 조상숭배사상이나 의리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사이 무절제한 서구문명의 수용과 배금주의의 범람에 의해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전통사상이 비하되는 풍조로 해서 유교도 소외될 수밖에 없었지만, 근년에 와서는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고 유교인은 자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유교의 인본주의사상이 현대의 기계문명, 물질만능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데 유교사상이 원동력이 된다는 풍조가 일고 있다. 이른바 유교자본주의라 불리는 新造理論이다. 유교적 인간관계의 정립, 유교적 의리정신의 확립이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된다는 것이다. 근검절약, 孝悌忠信과 先公後私, 愛親敬長의 유교 윤리를 유교자본주의의 덕목으로 드는가 하면, 推己及人을 기업가의 윤리, 滅私奉公을 노동자의 윤리로 꼽을 수 있다. 하여튼 유교 윤리를 재조명 또는 재정립해서 현대 산업사회의 부조리를 극복해 보려는 시도에서, 또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이용해 보려는 속셈에서 유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기 시작했다.

셋째는 전통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고조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 사이 잃어 버리고 살아 온 '자기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기도 하다. 토속적인 것, 민속적인 것에서부터 옛 문물제도, 철학사상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유교도 당연히 재조명해 보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열도 고조되고 있다.

유교가 과연 새 시대의 종교 또는 윤리로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현대 산업사회에 그 기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래사회에서도 그 역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자들은 더러 비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더러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비관론자는 유교는 이미 십팔세기에 弔鐘이 울렸다고 주장한다. 유교는 죽고 다만 그 형해(形骸)만 남아 박물관 한 구석에 내동댕이쳐져 있을 뿐이라 한다. 형해에다 새삼스럽게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한들 너무 오래 되고 낡아 혈색을 되찾기는 틀렸다는 것이다. 생명이 돌아온다 치더라도 현대 산업사회에는 쓸모가 없으며, 더군다나 미래사회에는 얼토당토 않다는 주장을 편다. 극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낙관론도 만만치 않다. 유교야말로 현대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신적

활력이며 미래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제 기능을 수행할 종교요 철학이라고 내세운다. 다만 낡은 것은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교사상을 현대 산업사회에 알맞게 재조명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大徑大法은 변할 수 없지만 지엽적인 주의주장은 수정되어야 하며 현대 과학문명과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어떤 종교도, 철학도,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2) 미래 사회의 특징과 유교

내일의 인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해 나갈지 아무도 단언하지 못한다. 미래학자들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 어떤 학자는 현대 문명의 발전을 감안해 미래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더욱 쾌적하며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 예단한다. 급격한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질병이 극복되고 수명이 연장되어 육체적 쾌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유전공학, 우주과학의 발달이 인류의 핑크빛 꿈을 무한대로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무한정, 무분별의 기계문명이 종국적으로는 인간의 정서를 고갈시켜 자멸의 기나긴 터널 속으로 인류를 인도해 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어쨌거나, 내일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설령 확언하는 학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예단에 머물 수밖에 없다. 미래 사회는 역시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오늘의 상황을 미뤄 내일을 짐작할 수는 있다. 많은 학자들은 미래 사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 첫째는 국제화이고, 둘째는 정보화며, 셋째는 과학화이다.

국제화 시대에 사는 미래 사회는 지구촌이라는 일컬음이 있듯이 전세계가 한 마을이 되어 국경도 희미해지고 민족의식도 탈색이 되어 갈 것이라고 한다. 초고속화된 교통수단에 힘입어 인류는 지구촌 구석구석을 분초를 다투며 누비고 인종을 초월하는 사귐으로 문화의 공유, 감정의 교류로 공감대 형성이 가속화되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촌 구석구석의 각양각색 정보들이 과학의 위력을 빌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휩쓸어 갈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문명의 과학화, 생활의 기계화는 최첨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주 정복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국제화, 정보화, 과학화로 치닫는 미래 사회에 인류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

자를 드리우는 장해 요인이 있다. 첫째는 핵이고, 둘째는 유전공학이며, 셋째는 환경 파괴, 넷째는 공해이다. 주지하다시피 핵은 가공할 파괴력과 후유증으로 해서 폭탄 한 두 개로 지구촌을 몽땅 날려 보낼 위력을 갖고 있고, 유전공학은 유전 인자의 조작으로 인류를 멸종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환경 파괴는 인간 생명의 원천을 앗아가게 하고, 공해 또한 사신(死神)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미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은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이분해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치부했던 것이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역할로 돌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인류의 삶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유전공학과 핵은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인간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이들을 다루고 이용하고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세계를 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제치는 일도,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일도, 과학을 생활의 질적 향상에 適宜하게 이용하는 일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이성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이 생래적으로 구유(具有)하고 있는 이성에 판단과 행위를 맡길 수 있다면 유교는 다음과 같은 特長으로 미래 사회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유교는 隨時處中, 隨時變通하는 易 哲學으로 해서 미래 사회의 다기다양한 변화에 適宜 對應하면서 인류의 양심을 지켜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유교는 천부적인 性善說에 근거한 인간주체사상을 확충해 나간다면 기계문명의 폐해를 극복 내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誠과 敬의 철학을 생활화하는 방도를 강구해 정보화 시대에 사는 인간의 윤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中庸』에서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라,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이고 성실에 힘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라고 했고, "誠者 物之終始"라, 성실하다는 것은 모든 일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했듯이, 성실성은 인류 공동체의 생활 궤도가 될 수 있다.

넷째로 유교의 恕 思想은 국제화 시대에 사는 인류에게 '너'와 '나'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설정해 주는 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恕는 如心으로, "推己及人"이라, 나 자신을 미루어서 남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己所不欲 勿施於人," 즉 내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한다든지,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이라, 내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도 도달하게 하라는 그런 사상을 지닌다.

다섯째로 유교의 孝 思想은 조상에 대한 原始報本하는 도리를 가르쳐 주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자녀에 대한 자애를 일깨워 줌으로써 가정을 지켜 주고 가족, 혈족 간의 응집력을 배양해 줄 것이다.

여섯째로 유교의 禮敎는 지구촌의 질서 확립에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해 갈 수 있을 것이다.

Ⅳ. 結論

유교는 어느 한 절대자나 초월자의 영감 또는 예언에 근거한 종교나 사상이 아니다. 유교는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조성된 윤리, 도덕, 문화가 응축된 사상체계이다. 유교의 개조로 추앙을 받는 공자도 일찍이 스스로 "述而不作 信而好古"(『論語』「述而篇」)라, 자기 자신은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술했을 뿐이지 창작은 하지 않았다, 또 돈독하게 믿었고 옛것을 좋아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인간을 주체로 하는 인간 중심의 철학이고 인간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덕적 신념체계며 종교이기도 하다.

유교는 중국 대륙을 중심축으로 삼는 동양사회에서 장구한 세월 동안 經世濟民의 이념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쳐 온 것이 사실이다. 수많은 왕조가 흥망을 거듭하고 종교, 사상이 시대에 따라 명멸을 해도 유교는 언제나 一以貫之로 이념의 주류로 우뚝 서 있었다. 아마도 유교가 주도하고 있는 영역이 인간의 심성에서 시작해 생활규범, 생활문화, 그리고 넓게는 우주와 역사의 순환규칙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상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나간 역사를 거울 삼아 현재와 미래를 비추어 보면, 유교는 오늘과 내일에도 의연히 인류사의 정면에서 인간이 살아 갈 모습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흔히 사회학자들은 현대를 '신이 없는 세기'라 규정짓기도 하고, 미래 사회를 '기계 시대'로 예단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교는 더욱 미래 사회에서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신의 자리에 인간이 서게 된다면 미상불 인간 주체의 도덕적 신념체계인 유교가 종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기계가 주인 노릇을 하는 세기가 도래한다 치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유교가

존엄성을 유지, 제고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유교는 易 哲學을 기본 사상으로 삼고 "隨時處中," 즉 時中思想에 입각해 시대의 변화에 適宜 對應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어떤 시대, 어떤 세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 윤리로 誠(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과 敬(主一無適)을 견지하면서 仁(愛人)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禮敎에 의해 공동체 질서를 바로잡아 가는 방법론도 모색될 수 있어야 한다.

유교의 孝 思想은 "老吾老 以及人之老," 즉 우리 집 늙은이를 늙은이로 받들어서 남의 늙은이에까지 미치고, "幼吾幼 以及人之幼," 즉 우리 집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함이 남의 어린이에게까지도 미쳐야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증발되려는 가정을 인간적 정애로 응결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恕 思想은 "推己及人(己所不欲 勿施於人,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의 도리를 지니고 있어 利己에만 급급한 사회 분위기를 순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덕목은 그 시대의 상황이나 여건에 適宜 應變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擇善固執하는 大經大法으로 시대 정신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회자 : 막스 베버가 지적한 것처럼, 유교는 전통 사회의 나쁜 관습을 다 거머쥐고 있고, 보수적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서구적 자본주의가 생겨나는 데에도 방해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벨라는 일본에서도 유교는 범국가적인 정신적 지주로 작용을 했지만 이 유교는 중국 유교와는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유교는 전통적인 개별주의, 특수주의(particularism)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와 사회의 보편주의적 규범이 없고, 그래서 관료주의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해 주지도 못했는데, 일본 유교는 중국 유교와 닮은 점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독자적인 업적위주주의라고 할까, 그런 것이 포함됨으로써 일본에서 경제 성장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홍콩, 싱가폴, 대만 등이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이를 분석하는 사회과학적인 이론들이 나옵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 중국, 싱가폴, 대만도 사실 다 유교적

인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에는 전통적인 유교와는 색다른 유교적 성향이 있어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유교가 요즘에는 지역에 따라서 차별성을 두면서 얘기되곤 하는데, 만약 한국 유교와 중국 유교 일반 사이의 차별성을 든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걸 특별히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 지역, 문화별로 유교의 차이를 분명히 전제해야 합니다. 유교의 대표적인 생활 윤리인 효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한국에 있어서는 다분히 수구적으로 효 사상을 가장 원형적인 형태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령 5·4 운동 이후에 유교를 배척하고 말살하는, 유교적 도의관을 말살하는 것으로서 중국이 근대화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특히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뒤 유교적 도의관 같은 것이나 생활화된 습속까지도 전부 말살시키고 마르크시주의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보면 이 마르크스주의도 거의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 점은 상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념은, 특히 소련이 붕괴한 뒤 가속적으로 전부 퇴색해 버렸고, 자유시장 논리에 근거한 자본주의 사조가 물밀 듯이 밀려들어 와서는 전부 물신 숭배 사상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 자체가 존립 근거와 골격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위기감에 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물질 만능사상을 제어하고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작년에 국제유학연합회(ICA, International Confucianism Association)라는 것을 조직할 때에, 민주 국가에서는 상원의장에 해당하는 중국의 정치협상회 현직 주석 이서환이 참석하고, 또 진보 세력의 기수로 요사이 후계 총리로 거명이 되고 있는 이남청이라는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이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공화국에는 공자 사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속속들이 다 썩었다. 인사를 비롯해서 뭐든지 지연, 혈연, 학연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중국이 도저히 존립할 수 없다.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위대한 공자사상을 계승하는 수밖에 없다. 이서환이 그렇게 연설하니까 중국 학자들이 굉장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강택민이 놀랍게도 또 거기에 동감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정권유지를 하려고 보니까, 이 이념적 공백 상태에서 공자사상을 다시 꺼내서는 어떻게든 새로이 조명해서 써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태의 추이를 보면, 그것이 더욱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가령 동아일보가 인민일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는 해마다 교류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첫 행사는 인민일보에서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내세운 것이 '공자사상과 21세기'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공자가 태어나 활동한 곡부에 가서 하자는 것입니다. 곡부는 시골이어서 교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곡부에 가서 하자는 제의인데, 동아일보에서도 동의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었고 저도 그 학술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공자사상을 다시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유학은 원래 예로부터 실용적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실용적이었는데, 양명학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보다도 훨씬 실용적인 측면을 존중한 것이 사실인데, 오늘날에 와서 중국에서 다시 유학을, 그야말로 박물관 속에 있는,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과도 같은 유학에 주사를 놓든 어떻게든 해서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서는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다시 옛날의 유교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유학은 우리보다는 훨씬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그렇게 자꾸 틀을 만들어가고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효도법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은 월급에서 얼마씩 벌금을 물리고 그래도 안되면 징역살이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를 유기해서는 안된다고 대단히 엄격하게 나오는 것인데, 하기는 싱가포르에서는 담배 꽁초 하나 버려도 벌금을 호되게 물리는 식으로 해서 질서를 잡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는 유교라고 해도 우리가 강조하는 孔孟 思想이나 程朱 儒學보다는 제자백가에서도 일종의 法家 쪽, 그러니까 한비자라든지 상앙이라든지 순자 같은 이들의 이론을 많이 가져다가 원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일상 생활에서 도덕을 세우는 데 주력하면서 권선징악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유교를 이용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유교를 나름대로 변형시켰습니다. 유적지를 다녀보면 번마다 향교가 있는데, 지형에 따라서 건물 배치가 전부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명륜당이 있고, 그 앞에 동서재가 있고, 그 앞에 문묘가 있고 동서무가 있고, 삼문, 내삼문, 외삼문 등 배치가 일정한데,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고 지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자기들 나름대로 배치했습니다. 건축의 모양도 각자 다릅니다.

유교 이론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유교 이론을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 무사도인데, 神道와 결합된 충군애국의 집단적 윤리나 도덕율로 정립시켰습니다. 유교 자본주의라는 개념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에 관한 책들도 많던데, 그런 책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전통 유교보다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가 이론이라든지 병가, 이를테면 손자병법이라든지 하는 이론도 원용해서 놓았습니다. 순수한 전통적인 유교라고 할 수 없고 많이 변형을 시켜놓았습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일본에서도 효 사상을 많이 강조하는가 봅니다.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의료 기술이 발전하니까 사회가 노령화되어 가고, 이제는 노령화된 인구를 국가에서 다 보살피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대단히 인색합니다. 우리에게 전후 보상하는 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정부에서만 다 책임질 수는 없으니, 이제는 자식들도 정부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노인을 받들자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역시 유교를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그때그때 변형 내지 소화하고 마름질을 해서 생활 철학이나 생활 윤리로 삼아온 것 같습니다. 유신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나 또 서구 사상이 밀려들어올 때에 재빨리 서양을 배워서는 동양에서는 가장 먼저 서구적인 국가를 건설한 것도 그런 변형 내지 소화의 능력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 인간적인 가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평등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흔히 유교가 남녀, 군신 등의 관계에서 차등 가치를 내세우는 신념체계라고 듣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평등을 이념으로 하고 헌법에도 그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유교가 그런 현대 사회의 이념과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교는 도덕이라든가 예로써 통치하는 것을 이념을 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전통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법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유교의 이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 대개 사람들은 유교가 차별의 사상 체계라고 알고 있는데, 따져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에 계층이나 계급이 있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열린 이후

에 서구나 동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층, 계급이 유교가 지배하는 사회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유교는 계다가 이론적으로도 차별을 강조하지 않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령 夫婦有別을 내세우는데,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別字가 우리가 생각하는 差別을 뜻하는 別字가 아닙니다. 나눌 別字, 分別할 別字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디까지나 남자이고 여자는 어디까지나 여자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성의 할 일이 있으니 몫을 정해준 것이지, 차별하라는 말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물론 실제 사회에서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始原 儒敎, 本源 儒敎, 즉 공자나 맹자의 유교에는 그런 차별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차별성이라든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유교 현대화 4대 원칙의 하나로 공맹 유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그 시절의 유교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도덕에 관한 공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형벌이나 법만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백성들이 그것을 어기고도 조금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며, 어떻게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만을 능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德과 禮로써 백성을 다스린다면, 도덕과 예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 하고 그 부끄러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착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덕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복잡한 산업사회의 구조로 보아 법은 필수적이겠습니다. 유교에서도 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나 도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제정도 도덕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집행도 도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과 도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곡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덕을 너무 우선시하다보니까 때로 법과 도덕을 혼동하는 수는 있습니다만, 원낙 조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뜻이지, 법과 덕이 상반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정법만 내세운다면 우리의 도덕 감각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이 우선이 되고 법이 그 다음이지, 법만 내세운다면 결국 사회를, 사람들을 약게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스님이 저에게 사형수들 교화하러 가자고 자꾸 권유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 스님 얘기가, 형무소

에 가서 이야기해 보면 살인이나 사기, 도둑질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잘못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개 운이 나빠서 걸려 들어왔다고 한답니다. 형무소 담장 밖에는 자기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다들 좋아서 피해 다니는데, 자기만 운 나쁘게 걸려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거의 80%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달래고 설교를 하고 나면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만 가지고 다스리다 보면 그렇게 도덕감각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법도 역시 도덕을 기반으로 해서 존립해야 그것이 일반 사회에 통용이 되고 인간의 미래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국가가 관장하여 국가의 의례는 다 유교의 의례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유교 교단은 문묘의례만 중심으로 하고 공자 유래의 전통 유교에서 행하던 제천, 사직 등의 국가의례들과 그 밖의 의례 체계들은 포기할 것인가, 계승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균관과 향교에 다 문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신 십팔현 가운데 퇴계까가지가 아홉 분이고 퇴계 이후가 아홉 분입니다. 그런데 퇴계 이후의 아홉 분에는 영남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법이 바뀌는 것처럼, 유교 전통 속의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요즘 눈으로 보면 충분히 문묘에 모실 만한 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문묘에 모실 분을 선정하는 것은 조선시대로 영원히 끝나고 이제는 더 열 수 없다는 입장인가, 아니면 어떻게 열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균관과 향교가 1600년 이상 된 전통적인 교육 기관인데, 일제 때에 그 교육 기능이 단절당했습니다. 광복 이후에 여러 가지로 시도가 있었는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성균관대학교의 일부를 빼고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향교를 다시 학교로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요? 제사 기능만 남아있고 교육 기능은 상실한 향교는 균형을 잃어버린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 정책으로 설정해 준 것을 우리가 아직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 처음 질문하신 의례의 문제가 사실 얼마 전에 표면화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 한양 정도 600주년이라고 해서 알성시를 재현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것을 또 합니다. 그 고정위원 가운데 전주 이씨 이은표라는 분이 종묘 제례 집전 기능을 보유한 무형 문화재입니다. 이 분이 회의 끝나고 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다름아니고, 서울시에서 사직단에서 사직제를 지내곤 했는데, 서울시에서 여러 해 전에 그것을 성균관에서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썽도 많고 해서 성균관에서 안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주 종친회에다가 맡아달라고 했답니다. 전주 이씨 종친회 내에 종묘 제례 보존회라는 것이 있고 그 회장이 이은표씨라고 합니다. 종묘 제례가 또 사실 전주 이씨 조상의 제례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종로구청에서 관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직단이 종로구 관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종로구청으로부터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사직에 제례를 올리고 있는데, 이은표씨는 자기 양심으로서는 종묘 제례 보존회라는 일개 사사로운 단체에서 그것을 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토를 보살피고 나라의 오곡백과를 내려주는 그 신에게 지내는 제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 일개 구청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장한다는 말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국가에서 지내야 하는 제례므로 서울시에서 관장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례를 성균관에서 맡아 달라고 합니다. 종묘 제례 보존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어서 흔연히 내줄 수 있다면 그때 성균관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은표씨가 종로구청에서도 안되고 서울시도 안되고 총무처나 청와대에서 관장을 해서 지내야 하는데 이 시대가 이 지경이라고 아주 통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천은 고사하고 종묘 제례까지도 그렇게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가령 기독교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런 것이 전혀 필요없겠습니다. 아마 광복 이후로 우리나라 첫 공화국부터 기독교를 신봉하는 분들이 정권을 잡아서 그런 전통적인 제례를 간단하게 무시해 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거론하신 문묘 배향도 지금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98년이 저 자리에서 성균관이 설립된 6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균관 대학교에서는 600년 주년 기념 행사를 기념 사업회까지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성균관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균관 창립 600주년 기념 사업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 가운데 하나가 제2 문묘 건설입니다. 그 후보지로는 천안 향교에서 기증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 문묘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주로 조선 시대에 문묘에 배향 안된 분들의 자손들이 줄을 지어서 저에게 찾아 와서 이

번에 모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쪽에서는, 문묘에 새로 배향하는 분은 옛날 왕조 시절 임금만이 선정할 수 있었던 것인데 성균관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견해는 주로 이미 문묘에 배향되어 있는 분들의 자손들에게서 피력됩니다. 감정까지 곁들여서 첨예한 이론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반대하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미 한 왕조가 바뀌었다. 지금 있는 18현은 그냥 두는 것이고 이것은 제2 문묘다. 여러분이 간여할 것 없다. 옛날부터 한 왕조가 바뀌면 새로이 문묘를 건설하는 법이다. 사실은 그런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러니까 모두 그런 줄 압니다.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로 자손들의 천거로 후보자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 조상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나서는데, 이것을 그냥 밀고 나갔다가는 큰일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와서는 제가 한발짝 후퇴했습니다. 이 사업의 초점은 문묘보다는 유교 교육원을 세우는 데 있다. 그런데 교육원을 세우면 봉신부터 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니 옆에 문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2 문묘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거론이 되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추진해야지, 너무 급진적으로 또 독단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의 교육 기능을 되살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235개의 향교가 있습니다. 광복 후에 복원된 것이 두 군데가 있고 순수하게 새로 세워진 향교는 단 하나입니다. 광복 후에 교회는 아마 여러 수천 개, 수만 개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고 불교 사원도 수천 개는 넘게 세워졌을 듯싶은데, 향교는 딱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유교가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향교의 재정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 그 235개 향교 중에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것, 유림들이 돈을 내지 않더라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답에서 나오는 수입이라든지 수익 사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2/3쯤이고 나머지는 땟거리조차 없습니다. 군이나 문화재 관리국에서 조금씩 주는 것으로 관리합니다. 집을 관리하는 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맡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제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부유한 향교에서는 재정 능력이 있으니까 더러 향교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을 파견해서 교육을 담

당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예, 한문, 예절을 가르치면 호응이 높다고 하고 이미 그렇게 하는 향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안이 하나 있습니다. 요사이 교육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각 종단에서 독립적으로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이라고 했다가 종교전문대학원이라고 바꿨는데, 성균관에서도 그런 대학원을 설립해서 향교 교육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유교 현대화의 4대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들도 사실상 모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의 피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현대화의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장애도 있을 듯한데, 어떤 장애를 유교 안팎에서 경험하시며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유교 내적인 장애로는, 역시 전통이라면 무엇이든지 고수하려고 하는 의식 구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치 유교인 양 고집합니다. 동성동본 혼인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다 유교의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이다,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공자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정권이나 시대에 따라서 군더더기로 붙은 것인데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유교가 아니라고 깨우쳐 주고자 해도 막무가내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대부터 지켜왔고, 우리도 지켜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다녔으니까 나도 저 향교에 가야 한다, 우리 할아버지가 음력을 따랐으니까 우리도 음력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유교다하는 의식 구조가 문제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서는 아직도 제사를 지낼 때 여자들은 일체 제청에 못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안된다, 원래 여성들도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아호는 종부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득해도 안 듣습니다. 공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식입니다. 그런 의식을 타파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봉건적이다, 남녀와 반상을 차별한다는 등등 온갖 나쁜 인상을 유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기는 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있으니 그런 비난도 감수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는 공맹 시대의 유교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더덕더덕 붙은 군더더기를 어떻게 제거하는가가 문제인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내적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인상을 불

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교의 진면목을 밖에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균관장에 취임한 뒤에는 텔레비전이나 그 밖의 대중매체에 안나갔는데, 지난 번에 추석을 앞두고 나와 달라고 하는데 주위에서 모두들 권유해서 출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는가 봅니다. 유림들도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 유림들도 어느 정도의 진보적인 생각은 수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자꾸 얘기하고 깨우쳐 주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유교를 종교의 영역에 넣어서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유교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식적인 문제 이상으로 철학적인 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려 말기에 불교가 타락하고 교단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당시 신진 사대부들이 불교를 비난하고 나섰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당하고도 필요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조선 왕조가 개창되고 유교가, 특히 성리학이 지배 이념으로 확립된 뒤에도 보면 外儒內釋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불교나 도교 등 성리학 이외의 다른 종교나 사상에 대해서 성리학 측에서의 대응은 대단히 편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선 후기로 오면 사찰은 산중으로 쫓겨가고 불교 승려는 천인이 되면서 불교의 역할이 거의 퇴색되어 버린 상태인데, 그 후유증으로 일제가 침략할 때에 불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유교가 적이고, 그 적의 침탈을 면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에 오히려 더 기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었겠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친일화되어 가는 경향이 일제 시대 어느 종교보다도 심하게 나타는데, 거기에는 유교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시대에 유교가 사상적으로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취했더라면 한말 혼란기의 대응도 좀더 신축성이 있을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가능한데, 유교는 경직화될대로 경직화되고 다른 것은 다 억압해서 사회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그런 상태에서 참 형편없이 무참하게 당하고 마는 것이 우리 근대사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

독교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불교계에서도 거기 대응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것은 아무래도 유교나 불교뿐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500백 년 동안에 지배 사상이었던 유교에 대한 기대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유교가 불교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불교 잘못은 없습니다. 고려 말엽에 불교가 타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왕조실록에 보면 태종 때 조정에서 불교를 배척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태종이 호통을 칩니다. 여기에서 부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륜 이외에 누가 있느냐,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태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만조백관이 모두 불교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라 만들기 사업이 일단락되고 지치(至治)주의, 의리(義理)정신 등이 나오고 난 뒤에 배불정책이 거세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정치에만 손 대지 않으면 가만히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 문정황후 때 불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생기고 유교에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더욱 거세진 것 같습니다. 성리학이 정착되고 학문의 주류를 이루면서부터 더 완고해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경색화되어서는 결국 유교가 나라를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제가 관장으로 취임하고 조계사를 찾아가서 총무원에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들이 하는 말이, 유교 지도자가 절에 찾아와 인사한 것은 아마도 몇 백 년에 처음이 아니겠느냐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 전통적인 종교인데, 앞으로 손 잡고 잘 지내도록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요사이는 서로 아주 친밀해졌습니다. 과거에 유교가 불교를 괴롭히는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일단 유교가 먼저 찾아보고 사과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유교를 종교라고 내세우는데,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유교도 하나의 신념체계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유교가 종교라고 하니까 유림들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유림들은 종교와 미신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이나 빌고 천당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종교이고 그것은 곧 점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히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교는 언제나 정부에서 늘 소외받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 초청해도 성균관장은 못끼는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그 소리 때문에 여태까지 성균관 관장이 그렇게 홀대 받는 것이라고 말합

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서는 불교 인구가 얼마고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가, 그 교세를 따져서 저울질하는데 유림들이 국세 조사같은 것 할 때에 종교란에 유교라고 쓰지 않으니 대접을 받을 수가 없고 행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유림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제는 국세 조사같은 것 할 때 꼭 유교에다 동그라미 하고 가족들도 모두 그렇게 하라고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 남지 못한다고, 국가나 사회에서 대우를 못받는다고 깨우쳐 줍니다. 그렇게 종교로 행세하지 않으면 유교가 설 땅이 없습니다.

유교 뿐만 아니라 불교도 포함해서 전통 종교가 지금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리한 대접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도 속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기독교와 불교 사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 유교는 아직 본격적으로 종교 대접을 못받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차츰차츰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모임에서는 종교 간의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협력을 도모하려는 노력도 경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을 앞두고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구심점을 범종교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마침 단군을 받든다 하고 우리도 개천절을 지키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종교를 초월해서 개천절에는 모든 종교의 지도자가 다 행사에 참석하고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서 민족 동질성 회복의 상징으로 삼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취지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최대 공약수라 할까, 합의점같은 것을 이끌어낸 한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